

# 2026 스토리텔링 공모전 1차 심사 통과작

제 목	장애인 임직원, '사회적 부재'가 아닌 '성장 동력'이 되기까지
<p>1. 멈춰버린 두 다리, 공단이라는 '다리'를 만나다</p> <p>2002년, 열아홉 청춘의 문턱에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하지 양대퇴부 절단이라는 가혹한 현실 앞에서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이동조차 불가능했던 그 시절 저를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것은 '사회가 정해놓은 한계를 깨고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두 다리는 잃었지만, 내 손과 머리까지 멈춰 서야 하는가?" 앉아서도 비장애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직업을 고민하던 제게 장애인고용공단은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고마운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답이 바로 속기사였고 공단의 지원 아래 시작된 속기 맞춤훈련을 통해 저는 밤낮없이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지체 1급 장애인 최초로 '한글속기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결실을 얻으며 세상에 나갈 첫 번째 열쇠를 거머쥐었습니다.</p> <p>2. 물리적 환경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다</p> <p>자격 취득 후 자막방송 회사에서 실무를 익히며 기록 전문가로서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는 국회 속기사라는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현직자의 조언은 차가웠습니다. 더 큰 꿈을 향한 도전에서 마주한 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닌 환경의 벽이었습니다.</p> <p>수시로 바뀌는 회의 장소, 건물 간의 빈번한 이동, 휠체어가 드나들기엔 턱없이 좁은 통로와 가파른 계단들까지! 중증장애인인 저에게 당시 국회라는 공간은 실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물리적 벽이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경적 한계를 마주하며 저는 잠시 멈춰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서 증명하기 위한 또 다른 도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속기라는 첫번째 직업을 내려놓고 제 역량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찾아 다시 한번 장애인고용공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p> <p>3. 삼성전자 장애인 채용, '배려'를 넘어 '실력'의 무대로</p> <p>2010년, 공단과 연계된 삼성전자 장애인특별채용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을 통해 입증된 저의 성실함과 속기사로서의 전문성은 준비된 인재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p> <p>제가 배치된 곳의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잇는 SCM(공급망 관리) 업무는 1분 1초의 데이터 변화가 물류의 흐름을 결정짓기에 전세계 물동 흐름을 실시간으로 조율해야 하는 긴박하고 정밀한 직무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더 이상 장애인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속기사 시절 길러온 고도의 집중력과 정확한 데이터 처리 능력은 글로벌 물류 현장의 수많은 변수를 관리하는 데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업무를 완수해내는 저의 모습은 동료들에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p>	

#### 4.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귀낸 눈부신 행복

안정적인 직업생활은 제 삶의 지평을 완전히 넓혀주었습니다. 수동적인 수혜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핵심 동력이자 당당한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바탕으로 저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퇴근 후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그 시절 절망 속에 누워있던 열아홉 소년의 제가 생각납니다. 공단이 놓아준 기회와 기업이 제공한 공정한 무대는 제가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고용은 한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넘어 한 인간이 존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영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 5. 시스템을 혁신하고 성과로 존재를 증명하다

저는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임직원들이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사내 장애인 관련 제도 신설과 인프라 개선을 끊임없이 제안하며 주도했고 장애인식개선과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장애인 임직원이 편리해지면 결국 임직원 모두가 편리해지고 이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에는 전 임직원의 귀감이 되는 올해의 우수임직원(모범상)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어 2023년에는 간부 조기 진급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장애인의무고용으로 입사한 중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적합한 직무와 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살아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 6. 맺음말: 장애인 고용은 '가능성'에 대한 투자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사회적 부채의 상환이 아닙니다. 저의 사례가 증명하듯 적합한 환경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장애인은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자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행복한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가 한계가 아닌 차별화된 역량이 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실력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기업이 편견이라는 안경을 벗고 인재의 진면목을 바라보는 그날, 더 많은 성장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사회적 부채를 갚는 과정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바라보길 바랍니다.